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복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발전과
우리 인민이
싸워나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가 주체110(2021)년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원회의에 참석하시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김정은원수님께 전원회의의 사회를 위임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이번 전원회의소집의 기본 목적과 그 의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시었고 역사적인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의 첫해인 2021년도 당 및 국가사업에 대한 당중앙위원회적인 분석과 평가를 내리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번 당대회가 제시한 발전과 변혁의 5개년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금의 한해 한해의 사업은 사회주의건설의 발전단계에 있어서나 우리 당과 국가의 현실적조건과 환경에 있어서 대단히 관건적이고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이번 전원회의를 통하여 우리모두는 올해 사업 못지 않게 방대하고도 중대한 다음해 사업의 전략적중요성에 대해 자각하면서 무겁고도 책임적인 고민을 마주하게 될것이라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있고 또 앞으로 직면하게 될 혁명의 주객관적조건과 환경을 보다 선명하게 예측할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가 할수 있는것들을 잘 알고 우리의 가능성과 자신심을 더욱 명확히 가지게 되었다고 하시었다.

지금의 대내외형세를 정확히 리해하고 정확히 판단하며 정확한 투쟁방침을 틀어쥐고 정확한 방향을 따라 정확한 걸음을 옮겨디더야만 실제적인 발전적변화로써 다음단계의 투쟁으로 이행할수 있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한해 사업을 긍지스럽게 총화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반드시 령정성을 가지고 교훈적인것을 먼저 분석해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찾게 되는 일련의 교훈들이

혁명적인 정책들을 더욱 보완하고 우리의 더 큰 발전잠재력을 불리일키는 추동력으로 되게 하자는데 이번 전원회의를 소집한 중요한 목적이 있으며 여기에 혁명발전의 커다란 실천적의의가 있다고 하시었다.

전원회의는 첫째 의정도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김덕훈내각총리가 제기한 보고와 부문별토론들을 청취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첫째 의정에 대한 강령적인 결론 《2022년도 당과 국가의 사업방향에 대하여》를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먼저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당과 국가의 첫째 사업정형을 분석총화하시었다.

당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실천강령을 높이 들고 긴장하고도 보람있게 투쟁해온 2021년은 엄혹한 난관속에서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으로의 거창한 변화의 서막을 열어놓은 위대한 승리의 해이라는것이 당중앙위원회가 내린 총평이다.

당중앙위원회가 올해 사업에서 내세운 총적인 목표와 지향은 제8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들을 무조건 수행하여 인민들이 기다리고 반기는 실제적인 변화, 실질적인 성과를 안아오는 것이었다.

당중앙위원회는 올해 사업을 포치하고 추진하면서 계획작성에서부터 발전지향성과 견인성, 과학성을 보장하는것과 함께 그 집행에서 무조건성과 철저성, 정확성의 기풍을 세우는데 특별한 힘을 넣었으며 일군들을 제때에 각성분발시키고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의 절실한 현안들에 대한 해결대책을 적시에 수립하였다.

당이 제일 중시하는 농업부문에서 평가할수 있는 성과, 자신심을 가지게 하는 뚜렷한 진일보가 기록되었다.

(2면으로 계속)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1면에서 계속)

중요한것은 농사의 흥풍을 좌우하던 재해성기상현상과 장애요인들에 예견성있게 대응하는 과학적인 방법론을 장악함으로써 어떤 조건에서도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는 확신을 가지게 된것이며 이는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비상한 애국적열성과 견인불발의 노력이 안아온 소중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의 불리한 조건에서도 농사를 잘 짓는데 적극 기여한 농업부문의 모범적인 일군들과 근로자들,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감사를 보내자는것을 전원회의앞에 정중히 제의하시였다.

전원회의는 김정은원수님의 제의를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였다.

당중앙위원회가 올해 인민들앞에 내놓은 주목되는 성과는 계획하였던 방대한 대건설과제들을 박력있게 추진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의 약동하는 발전상과 저력을 크게 과시한것이다.

송신, 송화지구의 1만세대 건설이 기본적으로 결속되어 또 하나의 대건축군이 일떠선것은 5개년계획기간에 수도의 살림집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수 있는 전망, 그 첫 실재를 보여준 경이적인 기적이다. 삼지연시우리기 3단계 공사가 마무리됨으로써 전국의 지방들을 개변시키는 장기적인 대건설을 확실성있게 밀고나갈 리상적인 본보기, 산 경험을 가지게 되였다.

검덕지구 5, 000세대 살림집건설이 성과적으로 진척되고 환경난도와 합병복도의 큰물피해복구가 원만히 진행되었으며 현대적인 다락식주력구건설을 비롯한 많은 대상공사들에서 새로운 건축형식이 도입되고 새로운 착상들이 창조되어 우리의 건축이 한단계 도약하고 건설의 대변영기가 계속 개화발전하고있음을 립중하였다.

인민경제의 동력보장을 맡은 전력, 석탄공업부문이 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경제전반을 활기차게 견인하고 경제공업부문과 기계, 채취, 립업, 특혜운, 철도운수부문에서 국가적건설과 생산적양양을 안반침한것을 비롯하여 올해 계획수행에서 진일일의 개선과 실적이 이루어졌다.

경제부문에서 계획구획이 확립되고 경제지도일군들의 사업기풍이 현저히 개선되었으며 이것은 앞으로 경제와 국가사업을 더 강력히 전진시킬수 있게 하는 힘있는 담보로 된다.

사회주의적인 생활, 사회주의적인 발전을 지향하는 전인민적인 공동된 사상의식이 보다 강렬해져 집단주의의 위력이 실천에서 높이 발휘되었다.

당중앙위원회는 올해 사업에서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을 이룩하려는 기운이 우세하게 발휘되고 당의 조직규율강화, 당결정집행을 비롯한 당풍확립에서 전환이 일어났다고 평가하였다.

내각을 비롯한 경제지도기관들에서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통제를 강화하고 경제관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들이 적극화되었으며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는 사업이 보다 심화되고 법률실사가 강화되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안정을 담보하는데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룩되었다.

결론에서는 올해 사업에서의 부족점들과 중요한 교훈들, 그 해결방책들이 상세히 언급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22년도 당과 국가사업의 중심방향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원칙적문제들과 투쟁방침을 천명하시였다.

다음해 우리 당과 인민앞에 나서는 기본과업은 5개년계획수행의 확고한 담보를 구축하고 국가발전과 인민생활에서 뚜렷한 개변을 이룩하여 조국청사에 영광스러운 한페지를 아로새기는것이다.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선인 경제부문에서는 현행생산을 활성화하면서 정비보강사업을 보다 힘있게 추진하여 나라의 경제를 장성케도에 올려세우며 인민들에게 안정되고 향상된 생활을 제공하는데 총집중하여야 한다.

결론에서는 다음해 기간공업부문이 수행하여야 할 중요정책과업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결론에서는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할데 대한 과업이 중요하게 제시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 나라 학생들에게 국가적부담으로 교육과 학용품을 보장하는것은 당과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형태의 질 좋은 교복과 가방을 모든 학생들에게 빠짐없이 공급할데 대한 과업을 제기하시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당중앙위원회적인 중대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결론에서는 채취공업과 립업, 정보산업 등 다른 부문들에서도 자기 부문 사업을 실지 전진시켜 국가경제발전에서 적극 이바지할데 대한 과업들이 언급되었다.

국토관리와 도시경영부문에서는 철저히 인민들의 생명재산과 국토를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산림조성과 강하천정리, 사방야계공사를 년중 꾸준히 진행하며 도로의 안전성과 문화성을 보장하고 생태환경을 보호, 개선하며 거리와 마을들에 원림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밀고나가야 한다.

결론에서는 인민경제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정비보강하는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할데 대한 과업들이 상세히 언급되었다.

또한 내각의 경제조직자적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계획화방법을 개선하는 사업을 심화시키며 경제활동을 정규화, 규범화의 케도에 올려세울데 대한 문제들이 강조되었다.

결론에서는 과학과 교육, 보건을 비롯한 문화분야의 사업을 혁신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추동할데 대한 중요과업들이 제시되었다.

은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 사랑하는 후대들을 위하여 조금도 지체함이 없이 과감하게 전개하고 반드시 성공해야 할 일대 결사전이라고 하시면서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뭉쳐 그 어떤 만난시련도 뚫고나갈 굳은 신념과 역센 힘을 지닌 위대한 인민이 있고 올해와 같이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자력으로 커다란 성과를 이루어낸 귀중한 경험이 있기에 우리 당과 인민은 또다시 자랑찬 승리를 쟁취하게 될것이라고 확인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결론을 마치시면서 전당과 전체 인민이 과감한 진군기세에 박차를 가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다음해를 조국청사에 뜻깊게 아로새겨질 혁명적대역사의 해로, 휘황한 미래로 나아가는 위대한 투쟁에서 또 하나의 분수령으로 되게 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당대회가 열린 2021년을 조국변영사에 특기할 자랑찬 승리의 해로 금지높이 총화하고 국가부흥의 새로운 지침을 명시한 김정은원수님의 결론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당겨오기 위한 2022년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귀중한 실천강령이며 필승의 전투적기치로 된다.

전원회의는 둘째 의정토의에서 국가에 산심의조가 검토하여 제기한 2021년도 국가에산집행정결과 2022년도 국가에산안을 최종심의하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에 제출할것을 승인하였다.

전원회의는 셋째 의정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당면과업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력사적인 보고 《우리식 사회주의농촌발전의 위대한 새시대를 열어나가자》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창당 첫시기부터 농촌문제를 중시하여온 우리 당의 정책과 그 실현을 위한 력사적행정에 대하여 개괄하시고 현시기 사회주의농촌문제의 올바른 해결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밝히시였다.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투쟁이 성숙된 요구로 나선 오늘 농촌을 혁명적으로 개변시키는것은 엄혹한 난국을 주체적힘의 강화국면으로 반전시키고 국가의 부흥발전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이룩해 나가는데서 중차대한 혁명과업으로 제기되고있다.

이로부터 당 제8차대회는 농업근로자들을 정책적으로 무장시키고 농촌을 현대적 기술과 현대문명을 겸비한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농촌으로 전변시키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농촌진흥을 강력히 다그쳐 나라의 농업을 확고한 상승단계에 올려세우고 우리식 사회주의농촌의 비약적발전을 이룩하는 위대한 새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사회주의농촌건설의 목표와 당면한 중심과업에 대하여 천명하시였다.

우리 당의 사회주의농촌건설목표는 온 나라 농촌을 주체사상화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만드는것이라고 하시면서 농업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제고, 농업생산력의 비약적발전, 농촌생활환경의 근본적인 개변이 우리식 농촌발전에서 점령하여야 할 목표이라고 하시였다.

민들의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변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농촌을 지속적인 발전케도에 확고히 올려세우는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농업근로자들을 농촌혁명의 담당자, 주인으로 만드는것은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주되는 과업이고 그 승리를 위한 판전적요인이라고 하시면서 농업근로자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정치의식을 높여주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 그들모두를 당의 사회주의농촌건설구상을 충직하게 만드는 농촌혁명가들로 튼튼히 준비시켜나가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였다.

농업생산을 증대시켜 나라의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것을 농촌발전전략의 기본과업으로 규정하시고 앞으로 10년동안에 단계적으로 점령하여야 할 알곡생산 목표와 축산물, 과일, 남새, 공예작물, 잡업생산목표를 밝히시였다.

보고는 농촌발전전략에서 특별히 중시해야 할 과업으로서 전국의 농촌마을들을 새롭게 변모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제기하였다.

나라의 모든 농촌마을들을 사회주의의 맛이 나고 해당 지역의 특성이 뚜렷이 살아나게 건설하는것은 농촌주민들에게 세상에 부러있는 훌륭한 생활환경을 제공해주며 국가의 전반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당에서 제일 중시하며 반드시 실현하자고 하는 전략적인 중대계획이다.

이 계획의 성과적실행을 위한 담보는 국가의 힘있는 지원과 강력한 국가적지도체계의 가동, 지방건설의 주인인 시, 군들의 역할제고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는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농촌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우리의 모든 농촌을 내놓고 자랑할수 있는 사회주의락원으로 훌륭히 전변시키며 인민들의 세기적속망과 리상을 앞당겨 실현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한 구체적 과업과 방도들을 천명하시였다.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는것은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보고에서 나라의 농업생산을 지속적으로 장성시키는것을 농촌문제해결에서 현시기 절박하게 나서는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의 제일 큰 농업업도인 황해남도를 중시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5개년계획기간에 당적으로, 국가적으로 황해남도에 힘을 집중하여 나라의 농업생산에서 기치를 들고나가도록 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려운 형편에서 경영활동을 하고있는 협동농장들의 전반적인 재정실태를 세세히 분석하시고 우리 농촌이 제발로 일떠서게 하고 농장들의 경제적토대를 보강해주기 위한 중요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협동농장들이 국가로부터 대부를 받고 상환하지 못한 자금을 모두 면제할데 대한 특혜조치를 선포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보고에서 농촌의 면모와 환경을 결정적으로 개변시키는것을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의 최중대과업으로 제시하시였다.

가까운 앞날에 전국의 모든 농촌마을을 삼지연시 농촌마을의 수준으로,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리상촌으로 만들어주는것이 우리 당의 농촌건설정책이다.

서 축적한 우수한 경험들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확대하여 전국의 모든 농촌마을의 생활문화환경을 변모시키며 그 과정을 통하여 문명한 전사회건설을 다그쳐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시, 군들에 농촌건설에 필요한 세멘트를 우선적으로 전진공급할데 대하여서와 설계력량과 건설력량을 강화하고 필요한 건설장비를 갖추데 대한 과업, 농촌건설에서 살림집건설을 선차적으로 내밀데 대한 과업, 농촌건설을 당적, 국가적으로 지휘하는 강력한 지도체계를 세울데 대한 과업, 주요자재들과 마감건재들을 국가적으로 보장하며 지방들에도 건재생산기지들을 꾸릴데 대한 과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방건설에 관한 당의 건축미학사상을 철저히 견지하여 농촌건설에서 독창성과 현대성, 문화성, 정치성을 보장할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의 정확한 령도가 있고 가장 올바른 농촌건설강령이 있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충실성과 애국적열정이 있는한 나라의 농업을 지속적인 발전케도에 확고히 올려세우고 농촌의 천지개벽을 안아오기 위한 력사적인 사업에서 필연코 승리가 이룩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새 시기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의 휘황한 전망과 설계도를 펼친 김정은원수님의 보고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발전의 새시대를 알리는 위대한 투쟁강령이며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우리의 분투로써 사회주의락원을 보란듯이 건설하려는 조선로동당의 강렬한 의지와 결심의 표출이다.

새로운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은 위대한 사회주의농촌문제의 심화발전으로서 농촌혁명의 불길은 세차게 지펴올려 사회주의의 전면적부흥을 다그치고 우리 인민의 세기적속망을 하루빨리 실현하는데서 중대한 변혁적의의를 가지는 기념비적문헌으로 된다.

전원회의는 김정은원수님의 강령적인 결론과 력사적인 보고의 사상과 정신에 립각하여 다음해의 투쟁과업과 새로운 농촌건설강령의 실행을 위한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는 분과별 연구 및 협의회를 3일간 진행하였다.

전원회의는 결정서초안작성소조에서 종합한 의견들을 최종심의하고 결정서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계획의 2022년도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와 《우리식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위대한 투쟁강령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전원회의는 넷째 의정에 대한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의 충분한 사전연구를 통하여 당규약수정안이 당건설과 당활동을 정규화, 규범화하는데서 실천적의의를 가진다고 인정하면서 당규약의 해당 조항을 수정할데 대한 결정을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다.

전원회의는 다섯째 의정을 토의하였다.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의 2021년 하반기 당조직사상생활정형에 대한 자료가 통보되고 총화사업이 있었다.

전원회의는 여섯째 의정으로 조직문제를 토의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을 소환 및 보선하고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을 소환 및 보선하였다.

2022년, 조선은 더 큰 승리를 마중간다

승리에로 인도하는 3대리념

한해가 어떻게 시작되고 끝나는가는 나라마다 각이하다.

세상은 2021년을 앞날에 대한 커다란 불안과 위구속에 맞이하였다. 지난해 행성의 곳곳에서는 때없이 닥치는 자연재해에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은 사람들의 한숨소리, 신음소리가 차고넘쳤고 살길을 찾아 방황하는 피난민들이 급증하였다.

지속되는 악성비루스병마는 사람들의 생명뿐 아니라 경제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쳐 기업체들이 연이어 파산몰락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해고되어 실업자대란까지 일어난 나라들이 허다하였다.

세상의 많은 나라들에서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속에 한지알길도 찾을수 없어 방황할 때 동방의 나라 조선에서는 한해의 정초에 나라와 인민의 운명을 지키고 국가변영의 새시대를 펼쳐갈수 있는 승고한 3대리념이 제시되었다.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 바로 이것이였다.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의 항도력을 높일수 있

또 한해, 새로운 길이 시작되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의 이목은 조선에 쏠려있다. 왜 그런가.

인더네트에 실린 어느 한 나라 인사의 글에서 그 대담을 찾을수 있다.

《나는 요즘 지도를 자주 펼쳐든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를 찾기 위해서이다. 영토도 크지 않고 인구도 많지 않은 동방의 작은 나라이다. 그

항상을 위해 마음쓰이며 그 목표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이야기들을 전해들을 수 있다.

무수한 위민헌신의 이야기, 감동없는 들을수 없는 인민사랑의 서사시들이 온 나라 집집마다, 공장과 농촌, 외진 섬마을초소에 이르기까지 새겨져 인민이 러지는 감동적인 목소리나 그칠 줄 몰랐다.

영도자를 령수이기 전에 어머니로 따르며 그 손길을 놓으면 생의 먼길을 갈수 없고 그 손길은 운명의 숨줄이라고 노래하는 인민은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사는 조선인민뿐이다.

그 어머니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 그것은 힘겨웠던 2021년에도 만만시련을 뚫고나가게 한 또 하나의 불가항력적인 힘이었다.

위대한 영도자를 모신 때로부터 수령, 당, 대중이 하나로 뭉친 조선의 일심단결

렇지만 온 세계가 류행성병마와 횡포한 자연재해로 울고있을 때 유독 웃고있는 인민이 사는 나라, 행성의 누구나가 래일에 대한 비판에 잠겨있을 때 확신과 희망에 넘쳐 래일을 마중가는 나라이다. 조선은 어떻게 막아서는 만만시련을 돌파하며 자기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것인지, 그길을 열어가시는분은 어떤분이 시기에 백전백승의 한길로 인도하시는것인지, 묻고싶다, 알고싶다.》

은 나라 인민이 그의 영도를 받들어 자체의 힘으로 떨쳐일어나 평양의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의 발파소리를 높이 울리었고 나라의 방방곡곡에 인민의 보급차리들을 일떠세우기 위한 거창한 창조대전을 벌리었으며 자위의 국방력을 과시하는 국방발전전람회

승리에서 더 큰 승리로

위인을 모시면 작은 나라도 큰 나라로 되고 위대한 나라로 빛을 뿌릴수 있다.

따도 그 땅이고 민족도 그 민족의 후손이지만 오늘 조선이 강국의 전열에 당당히 서서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길들이고 뚫어잡으며 력사의 새시대를 주름잡고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그대로이신 회세의 천출위인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영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강국에서의 길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대로 빛을 뿌리도록 하여 주신다.

조선이 자기의 발전행로를 통해 보여준 정치사상적 위력, 자립적경제발전의 힘, 자위적국방력은 오늘날 세계가 조선을 동경하는것을 하나의 흐름으로, 추세로 되게 하고있다.

국력과의 심야열병식, 인민사랑의 련이은 특별조치들과 육아정책, 첨단무기들의 최첨정을 과시한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눈부신 이 성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련되고 독특한 정치방식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며 그의 항도따라 나아가갈 때 승리와 영광, 번영의 대로가 뻗어있음을 실증한 빛수 없는 화폭들이였다.

조선의 모습을 경탄과 놀라움속에 바라보며 세인이 러친 부러움과 찬탄의 목소리들이 누리려 짐강하고 있다.

《조선은 시련이 커질수록 더 강대해지는 나라이다. 자위적행무력과 일심단결이라는 두개의 핵으로 다져진 억척불변의 힘은 실로 상상을 초월한다.》

《조선을 노래는 세력들이 공화국의 다음세대를 노리면 서 저절로 망하기를 고대한다 는 말을 들은적 있다. 하지

만 조선의 다음세대는 힘차게 나래를 펴고 날고있다.》

《조선은 민간부력 하나만을 가지고도 나라를 끄떡없이 지켜낼수 있음을 온 세계 앞에 실증하였다.》

... 은 한해 국가와 인민을 현명하게 이끌어 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한해가 다 저물어가던 12월말에 뜻깊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를 소집하시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조선로동당과 인민의 투쟁을 승리의 다음단계로 강력히 인도하는 전략전술적 방침과 실천행동과업들을 토의 결정하도록 해주셨다.

그리고 력사적인 결론 《2022년 당과 국가의 사업 방향에 대하여》로 투쟁과 승리의 지름길을 환히 밝혀 주셨다.

2022년 조선이 가는 길은 더 큰 승리와 잇닿아있는 가장 끝바른 진로이다.

불세출의 위인을 모시면 승리의 폐지로 기록된 2021년, 공화국은 항도의 그 손길따라 2022년의 행로도 위대한 승리의 금문자로 아로새길것이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확신하며 2022년, 조선의 길은 시작되었다.

본사기자 리경월

영도자와 함께 맞는 설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공화국인민들은 해마다 새해의 첫아침을 기쁨과 감동속에 맞이하곤 한다.

한해가 찻물고 새해의 첫아침이 밝아올 때면 공화국인민

누구나 제일 뽕고싶어하는분이 김정은 원수님이다.

영도자와 공화국인민이 함께 보낸 설날, 그날들가운데는 민족자주위업을 드림없이 이어갈 의지가 담긴 인민

군부대에 대한 헌지시찰도 있고 조국의 미래인 후대들을 위해 바친 하루도 있으며 온 나라에 과학기술성취열풍을 불러일으켜주시려 몸소 참석하신 준공식도 있고 조국인

민들에게 보내신 따뜻한 새해의 인사로 밝아온 1월 1일도 있다.

우리는 공화국의 양력설날에 있는 감동깊은 화폭들의 일부를 펼쳐보려고 한다.

위인의 축복

공화국에서 새해의 첫아침인사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인민들에게 하시는 인사로부터 시작된다.

주체102(2013)년 1월 1일 아침이 강산을 울리며 온 나라 인민들에게 새해의 따뜻한 인사를 드리고 온 나라 모든 가정들에 화복

과 더 큰 행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영도자가 인민에게 하는 첫인사, 그 따뜻하고 정깊은 인사를 받아안은 인민은 얼마나 행복할 인민인가.

인민의 행복을 위해 위민헌신

의 로정을 끝없이 이어가시며 끝없는 로고를 다 바치시고도 기울어신 정적으신듯, 바치신 심혈이 부족하신듯 지난해에 이렇게 맹약하시였다.

우리 인민의 리상과 념원이 꽃필 새로운 시대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울것이라고, 위대한 인민을 만드는 충심 일편단심

변함없을것을 다시금 맹세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김정은 원수님의 이 진정에 넘친 인사, 맥양에서 공화국인민들은 더 번영할 조국의 래일에 대한 확신을 가다듬게 되며 온 한해 지칠줄 모르는 애국의 열정과 패기를 안고 사회주의를 확신있게 건설해가시는것이였다.

《나는 위대한 강국의 공민이다!》

강국의 공민!

지구상에는 령토와 인구수, 경제력과 군사력을 자랑하는 나라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광활한 령토와 수억의 인구를 가졌다 해도 열강들의 강권과 전횡에 굴복하는 나라를 강국이라 할수 없으며 구소수 특권계층만을 위한 번영과 경제력과 경제력 비들이 결코 강국을 특징짓는 징표로는 될수 없다.

한다면 공화국인민들의 가슴마다에 뚫어넘치는 위대한 강국의 공민이라는 자긍심은 과연 어디서 솟았는것인가.

힘의 론리가 지배하는 이 행성에서 공화국은 정의와 진리의 대변자로 세인의 각광을 받는다.

남들 같으면 열백년도 더 주저앉았을 험로역경속에서 자력자강, 자력방위의 불길드높이 일러마다, 전야마다 새기적, 새 기록창조가 사회주의승천가로 울려져오고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인민의 꿈과 리상이 응축된 문명과 행복의 무릉도원들이 우후죽

과학으로 여신 새해의 첫 문

주체105(2016)년 1월 1일 평양의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위치한 속섬에서는 전체 인민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과학기술전당 준공식이 성대히 거행되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친히 준공예도를 끊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당의 내부를 보시면서 조선로동당

하면 그것이 곧 사회주의강국이라는 유명한 명제를 제시하시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당과 국가의 차대한 과업으로 일관하게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이며 사회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이다.

이런 드림없는 신조를 지니시였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2016년의 첫 문을 과학으로 여신것이였다.

뜻깊은 그해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기술강국건설을 위한 지름길을 밝혀주시면서 과학으로 흥하는 시대, 년대와 년대를 뛰어넘으며 비약해나가는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본사기자

《김정은 총비서의 세련된 령도밑에 조선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전변되었으며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경제강국건설에서 눈부신 기적을 창조하고있다.》, 《조선을 이끄시는



탁월한 령장을 높이 모시여

명장 밑에는 약물이 없고 위대한 령장의 슬하에 강군이 있다.

오늘 공화국무력은 또 한분의 령장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어 무적의 전투대로 자랑벌치고 있다.

주제100(2011)년 12월 30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어 공화국무력의 정치사상적위력과 전투력, 무장장비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었다.

오늘과 같이 공화국무력이 세계최강의 장애무력으로 강발발전될 수 있는것은 령장으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완벽하게 체현하시고 군건설과 군사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독창적으로 과학적으로 풀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평군술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화국무력을 정치군사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무적결승의 강군으로 키우신 강철의 령장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가적인 중요회의들에서 전군을 집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군대를 정치사상강군으로, 그 어떤 강적도 타승할 수 있는 무적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명시하여주시었다.

총대에 사상이 결합되면 그 위력은 백배해지며 그렇기 못할 때에는 아무리 현대적인 무

기도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것은 력사가 실증해주고있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해 7월에도 건군사상 처음으로 되는 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정치일군 강습회를 조직하시고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공화국무력의 최정예화, 강군화로서와 과업들을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가 훈련을 강화하여야 이 땅의 평화도 지키고 사회주의강국도 하루빨리 건설할 수 있다는 철리를 통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국수호의 화신길을 앞장에서 걸으시어 자위의 역센 보검을 마련해주시었다.

인민의 운명을 지켜 모든것을 다 바칠 각오를 안고서 새 무기개발현장을 찾으셨고 낫과 밭이 그 얼마인지 모른다.

국방과학자들에게 새 기술창조의 열쇠도 안겨주시고 한밤이 지새도록 새 무기조립도 지도해주셨으며 새 무기시험사격을 가까이에서 보아주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치신 사생결단의 길에서 공화국의 무장력은 세계최강의 수준에 오를 수 있었다.

진정 오늘날 조선의 국력은 민중자존은 공화국의 생명이고 우리 혁명의 근본초석으로 되어 굵어죽고 일어죽을 지언정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억척불변의 의지로 공화국의 국력을 최상의 경지

에 올려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같은 헌신과 로고를 떠나 생각할 수 없다.

이처럼 공화국무력의 최정예화, 강군화를 실현하고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키우신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군령도사에 애쓰신 빛나는 업적이다.

강군의 위용은 강군으로 담보된다.

령도자가 위대하여 강군이 있고 령도자가 위대하여 불패의 무적이 있다는것을 공화국은 지난해 1월과 9월에 진행된 심야연병식, 10월에 열린 국방발전전략회의 《자위-2021》을 통하여 세계에 현실로 증명하였다.

연병식을 본 세계의 수많은 언론들은 《조선이 심야에 진행한 연병식은 사람들에게 세게일류군의 군대를 보여주었다》, 《이번에 보여준 무장력은 그 누구도 감히 조심을 넘보지 못한다는것을 시위하였다》, 《조선은 민간무력만 가지고도 능히 자기의 존호를 사수할 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조선의 국방공업의 위력과 무력의 군사기술적강세를 시위한 일대 축전이었다》고 격찬하였다.

지금 공화국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공화국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남다른 긍지를 안고 새해에도 사회주의강국을 향하여 더욱 보무당당히 힘차게 나아가길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주일봉

2022년 새해가 밝아왔다.

새해를 맞이한 이 땅에 기쁨과 환희, 희열과 랑만이 한껏 넘쳐난다.

《사회주의협동법 어디서나 신심과 락판에 넘친 목소리들을 들을 수 있다.

《사회주의농촌진흥의 앞길을 밝힌 웅대한 설계도를 받아안으니 심장이 똘똘하고 힘이 용솨음친다. 우리는 새해에도 또다시 승리할것이다》.

《신심이 넘쳐난다. 우리 농촌이 변혁하는 새로운 시대가 금시 보이는것만 같다》.

...

지난해 12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현시기 농촌문제해결의 가장 과학적인 진로를 명시한 새로운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을 받아안고 격동된 심정을 금치 못하고있는 공화국인민들이다.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느라니 홀리간 2021년의 한해가 되새겨진다.

새로운 5개년계획의 첫해인 지난해는 지방이 일떠서는 전환점이 마련된 의미깊은 해라고 말할 수 있었다.

지난해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도, 시, 군들에서 지역특색에 부합되는 발전전략과 전망목표를 잘 세우고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전면시작을 웅대한 대장을 마련해주시었다.

하여 국가적으로 농촌을 적극 지원하고 시, 군들을 지역특색이 살아나게 균형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이 나날 백두산아래 첫 등대 삼지연시가 산간문화도시의 본보기, 농촌진흥의 표준으로 변모되고 여

농촌진흥의 응대환여

리 시, 군들에 훌륭히 일떠선 사회주의농촌마을들과 행복의 별천지들에서 환희와 격정의 목소리가 끊이지 울려져왔다.

어제 그뿐이라.

지난해 농업부문에서 다수확운동이 힘있게 벌어져 훌륭한 작황이 마련되었다.

재해성이상기후의 피해를 가시고 풍물배치와 파종시기를 합리적으로 잘 조절하는것과 함께 새로운 선진농기술과 방법을 적극 받아들인 각지의 농촌들이 과학농사철용으로 온 한해 부글부글 끓었다.

이 나날 풍요한 가을의 밀거름이 될 각오에 남먼저 새벽이슬을 맞으며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내달린 수많은 농업근로자들이 다수확자들로, 전국의 수많은 단위들이 다수확장장, 다수확작업반의 영예를 지니었다.

력사에 류례없는 난관속에서도 승리라고 긍지높이 자부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룩할 수 있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가 안아온 결실이다.

지난해 사회주의농촌만이 아닌 공화국 각지에서 울려 퍼진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나아가 갈 때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 진리를 공화국인민들의 심장마다에 더욱 깊이 새겨주었다.

하기에 새해의 이 아침 농촌문제해결의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진로를 명시한 새로운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을 관철하기 위한 힘찬 투쟁에 떨쳐나선 공화국인민들은 결어갈 앞날을 신심과 락판에 넘쳐 그려보고있다.

더욱 백두산아래 첫 등대 삼지연시가 산간문화도시의 본보기, 농촌진흥의 표준으로 변모되고 여

본사기자 림광훈



어머니 조국과 숨결도 발걸음도 함께 하며

승리의 해로 빛나는 주제 110(2021)년의 자랑찬 페이지에는 자본주의이역에서 랑홍색공화국을 휘날리며 조국을 옹위하고 조국을 사수하며 애국애족의열을 힘있게 다그쳐온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건일불발의 투쟁의 자욱도 력력히 새겨졌다.

주제강국의 공민된 존엄과 자부심을 안고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어머니 조국과 운명의 퍼즐을 잇고 애국애족의 선각자, 애국충정의 모범, 세계해외교포조직의 본보기로서의 영예를 빛나게 고수하고 열거했다.



화사업과 문예, 체육활동도 광범히 조직진행하였다.

총련 금강산가극단에서는 동포들의 심장에 애국의 불을 달아주고 민족성고수의 열광이 다시금 휘몰아치게 하기 위한 대소공연들을 적극 진행하였다.

지난해 4월 도쿄에서 대성황리에 진행된 금강산가극단의 특별공연 《봄향기》는 동포사회에 민족의 향취와 정서, 약동하는 생기와 활력을 부여하였다.

이 무도조선초급학교창립 30돐 기념공연의 주제 《술》(소나무)로 정한 금강산가극단 창작극, 예술인들은 몸은 비록 이역땅에 있어도 마음은 눈속에 묻혀도 푸른빛 잃지 않는 소나무처럼 변함없이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동포들 사이에 오가는 따뜻한 정의 힘으로 온갖 어려움을 뚫고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가려는 일념단심을 공연종목마다에 담아 동포사회에 주제성과 민족성이 더욱 울려넘치게 하고 화목하고 단합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대류행전연병화산으로 많은 예로와 난관이 막아나섰지만 도쿄와 효고현, 가나가와현을 비롯한 12개소에서 20여차례 걸쳐 소련대공연활동을 벌려 재일동포들로 하여금 조국과 동포사회의 귀중함을 배부르느라기 하였다.

동포애호가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특강경연, 온라인악연주경연 등이 진행되었으며 재일동포들의 커다란 관심속에 동포미술작품전시회도 도쿄에서 조직되었다.

지난해 11월 오사카에서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3돐기념 재일조선초급학교 중앙체육대회는 대류행전연병상향속에서도 동포사회에 활력을 더해주었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강국공민의 존엄과 기개를 안고 날로 가중되는 일본당국과

반동세력들의 부당한 제재와 인권침해, 차별책동에 맞서 완강한 정의의 투쟁을 전개하였다.

재일동포들은 더욱 비렬하게 감행되는 일본당국의 민족교육차별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에 열거하였다.

유보무상화중앙대책위원회의 주도하에 100만명서명운동과 유보무상화에서 제외된 재일조선어린이들에 대한 새로운 지원책을 적용할것을 일본당국에 요구하는 요청활동이 일본전역에서 맹렬히 벌어졌다.

조선대학교 학생들을 학생지원금지불대상에 포함시킬것을 일본당국에 요구하는 활동과 차별의 부당성과 일본의 비렬한 처사를 국제사회에 고발하는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조선고급학교를 고등학교지원대상에 포함시킬것과 교육원보조금을 지불할것을 요구하는 대중운동도 힘차게 조직 전개하였다.

민족교육의 권리를 옹호하는 재일동포들의 완강한 투쟁은 일본에서 자행되는 비렬한 민족차별책동을 세계에 고발하고 일본당국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미중유의 시련과 도전속에서도 불굴의 신념과 애국의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의 철저한 대변자, 견결한 옹호자, 친철한 봉사자로서 민주주의적진취성과 불굴의 투쟁을 위하여 적극 헌신해온 총성의 애국대오의 투쟁은 주제조선의 크나큰 자랑으로 되고있다.

황금만능의 이역에서 누구나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애국의 한길은 곳곳이 걸으며 일신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오로지 민족교육과 총련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분투하고있는 이런 미더운 애국자들이 있기에 우리 조국이 더욱 존엄하고 총련애국위업의 바통은 굳건히 이어지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조국의 전진에 속속 따라사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존엄높은 자주강국으로 위용벌치는 조국의 거세한 숨결은 재일동포들에게 있어서 필승의 원동력, 억척의 지지대, 투쟁의 활력소였다.

총련에서는 지난해에도 위대한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드는 사업을 자기 활동의 제일생명선, 필승불패의 원천으로 삼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과 혁명사상을 동포들의 심장마다에 새겨주기 위한 사업을 진공적으로 전개하였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대양절과 광명성절을 비롯한 주요기념일마다 중앙대회와 중앙강연회, 중앙사신전시회 등 뜻깊고 다채로운 행사들을 진행하여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상과 령도공모를 심어주기 위한 사업을 모든 활동의 첫공정으로 삼고 공세적으로 벌리었다.

총련중앙위원회 제24기 제4차회의, 총련본부위원장회의와 총련본부위원장들의 지방회의들을 통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와 당전원회의들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동포대중속에 신속정확히 전달침투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들

이 강구되었다.

총련조직의 전투력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총련의 조직건설을 분회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이 실속있게 추진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총련분회대표자대회-2020》(새 전성기 3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축하문을 높이 받들고 지난해를 총련분회를 강화하는 해로 정하고 일군들과 분회위원들을 총열기시켰으며 조직건설을 분회중심, 분회강화로 확고히 전환하였다.

새 전성기 애국애족모범분회의 영예를 지닌 분회를 비롯한 앞선 단위들이 새 전성기 애국애족모범창조운동 동포사회에 급속히 확산시키기 위한 투쟁을 견인하도록 하였다.

더 많은 분회들을 재건할 성화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일군들과 핵심들이 동포사회의 기층조직인 분회를 도와주고 강화하는 사업에 힘을 냈었다.

재일본조선학생공련협회(학생공련)는 《COVID-19》감염증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동포청년학생공민들을 도와주어 그들이 조직을 강화하고 역할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도록 하였다.

《우리 민족포럼 2021》, 《청상회상생위원회》, 인터넷강연회를 비롯한 여러가지 애국운동을 실속있게 벌려 이역에서도 동포들이 애국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녀성동맹에서는 세계적인 보건위기로 동포들의 생명과 생활안전이 위협을 받

는데 맞게 분회사업을 동포방문사업으로 전환하고 개별단위당체실시와 연계망강화를 통하여 동포사회에 혈연의 뜨거운 정이 차넘치게 하였다.

잡지 《이어》 편집부는 300호발간을 계기로 동포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다채로운 편집물들을 제작배부하여 위기를 겪는 동포사회에 새로운 활력과 신심을 북돋아주었다.

《새세대》, 《조선상공신문》도 독자들의 투쟁과 요구에 맞게 편집물의 내용과

형식을 대사회, 통속화하여 각계층 동포들이 세계적인 악성전염병의 전파상황속에서도 생명안전을 지키고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어머니조국을 대신하는 우리의 조직!

동포사회에서 울려나오는 이 부름은 조국의 자주정신과 기개, 뜨거운 정과 사랑으로 동포들을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영예로운 본분을 다한 총련조직이 받은 가장 보람차고 행복한 평가이다.

원수님께서 조선대학교창립 65돐에 즈음하여 보내주신 축전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 관철을 위한 사업에서 전진을 이룩하였다.

지난해 4월 10일 입학식에 앞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대학교창립 65돐을 맞으며 보내주신 강령적인 축전을 전달하는 모임》을 의의있게 조직하여 대학이 단순히 지식을 배워주는 장소가 아니라 주체의 리념과 불변의 신념, 순결한 향기를 심어주는 곳, 해외의 참된 애국충선, 애국인재를 키우는 자주적인 인간육성의 신성한 전당임을 새세대 청년들의 마음속에 깊이 심어주었다.

창립 65돐에 즈음하여 조선대학교를 내외에 크게 선전하기 위한 국제학술대회와 학술연구회 등이 진행되어 존엄높은 주체의 해외교포대학의 명성을 세계에 떨치었다.

문예, 체육단체들을 발동하여 동포사회에 신심과 락판을 안겨주기 위한 민족문

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학생들에 대한 교수교양사업에서 전진을 이룩하였다.

화상방식의 수업을 적극 도입하여 큰 도시학교와 중소도시학교들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의 일원화를 보장함으로써 민족교육을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선강화하는 귀중한 경험을 창조하였다.

총련 조선대학교가 경애하는

지키자, 떨치자 우리의 민족교육문화!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일본 반동들의 차별적이며 포괄적인 민족교육탄압책동과 장기화되는 대류행전연병의 재앙으로 모든 활동이 억제되는 속에서도 민족교육의 명맥을 굳건히 지키면서 자랑찬 성과를 확대하였다.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조건과 환경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교육의 정보통신기술화

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학생들에 대한 교수교양사업에서 전진을 이룩하였다.

화상방식의 수업을 적극 도입하여 큰 도시학교와 중소도시학교들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의 일원화를 보장함으로써 민족교육을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선강화하는 귀중한 경험을 창조하였다.

총련 조선대학교가 경애하는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우리 민족포럼 2021》



금강산가극단 대체로운 순회공연활동 진행



조선대학교 제 63 회 졸업생들



일본당국의 민족교육차별책동을 반대하여 대중운동 전개

통일애국의 높이를
길에 세워 나가야 할
변함없이
기치

새해 주체111(2022)년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원장으로 정립해주신 때로부터 25년이 되는 해이다. 지금 온 겨레는 뜻깊은 올해 조국통일3대원장의 기치높이 통일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어나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있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3대원장은 나라의 통일위업수행에서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불멸의 기치이다. 지금으로부터 50년전 북과 남이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재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립장과 근본방도를 천명한 조국통일의 초석이다. 자주 원칙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이며 민족통일운동의 출발점이다. 자주 원칙을 견지하여야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의 요구와 근본리익에 맞게, 우리 민족자재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갈수 있다. 우리 나라의 분열은 전적으로 외세가 강요한것이다. 따라서 통일을 이룩하자면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야 한다. 나라의 통일문제는 전쟁의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이제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재난을 당할것은 우리 민족이다. 민족의 머리에 드리운 전쟁위험을 가지고 평화적으로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념원이다. 민족대단결은 조국통일위업실현의 결정적담보이다. 통일을 이룩하자면 통일을 바라는 모든 민족성원들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 단결된 힘은 강하며 온 겨레의 하나로 뭉친 힘과 노력에 의해서만 통일의 대문이 열릴수 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항구적으로 높이 들고 나아가는데 민족의 통일속진을 이룩하는 길이 있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온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의 주체적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강령이다. 이 강령에는 민족대단결의 목표와 리념적기초, 단결의 원칙과 방도가 전면적으로 명시되어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국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 설계도로서 여기에는 조국의 통일을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를 서로 인정하는 기초우에서 가장 공정하고 순조롭게 실현할수 있는 기본방도가 제시되어 있다. 조국통일3대원장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생명으로 여기는 민족자주정신으로 일관되어있으며 북과 남의 화해와 전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구현하고있다. 조국통일3대원장은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오래동안 존재하여온 현실적조건과 통일을 갈망하는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에 맞게 하루빨리 조국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도를 밝혀주고있다. 조국통일3대원장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정에 이룩되고 그 진리성이 검증된 과학적인 통일원장이다. 조국통일3대원장은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견지하여온 조국통일의 근본원칙, 방도와 함께 통일의 강력한 주체를 마련해온 경험, 다방면적인 협상경험,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위한 투쟁경험 등 조국통일운동의 모든 분야에 걸치는 고귀하고 풍부한 경험이 집대성되어있다. 조국통일3대원장이 있어 우리 민족은 뚜렷한 목표와 방향,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즐기치게 될어나갈것이다. 조국통일3대원장이야말로 조국통일의 기치이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현실적인 투쟁강령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반통일세력의 대결정책, 전쟁책동들을 짓부셔버리면서 조국통일3대원장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추켜들고 나아가갈 때 조국통일의 새 아침은 반드시 밝아오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북과 남, 해외의 동포 여러분! 가슴부부는 희망과 새로운 기대로 끓어넘치는 새해 2022년의 첫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밝은 새해의 이 아침 우리 겨레의 가슴속에는 민족분열의 고통을 하루빨리 가시고 자주통일의 그날을 앞당겨줄 신심으로 가득차있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 분열의 고통을 강요당한 때로부터 어느덧 일흔

신심드높이 나아갑시다

일곱해가 되었습니다. 77년! 이 기나긴 나날 국로량단과 민족분열로 우리 겨레가 당한 고통은 얼마이며 겪어온 불행은 또 그 얼마입니까. 세월은 흐르고 흘러 강산은 많이도 변하고 세제도 바뀌었지만 민족분열의 아픈 려사는 계속되고있습니다. 민족분열이 강요하는 고통과 불행이 이제 더는 감수하고 살수 없기에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에 대한 열망은 날이 갈수록 더더욱 강렬해지

고있습니다. 지나온 한해에도 민족의 번영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해 공화국정부가 기울인 노력은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를 통일애국의 길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습니다. 동포 여러분! 올해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원장으로 정립해주

신 때로부터 25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뜻과 마음과 힘을 합칠 때 두려움없고 애고 못낼 일도 없으며 조국통일의 길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은 훌륭한 조국통일운동역사가 실증해주고있습니다. 우리 겨레의 자주적인 조국통일운동의 진두에는 민족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계속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겨레와 민족을 가장 뜨겁게, 가장 열렬히 사랑하시며 전체 조선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겨주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모두 승리의 신심드높이 이 땅의 평화번영과 자주통일의 그날을 향해 큰걸음을 내딛읍시다. 이것이 희망찬 새해에 부치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본사편집국

지난 한해 세 차게 라오를
통일을 위한 투쟁의 불길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역사적로정

전 민족대 단결 10 대 강령 발표

1990년대에 들어와 조성된 정세는 북과 남이 다같이 자주적립장을 견지하고 온 민족이 단결하여 나라의 평화통일을 촉진할 보다 적극적이며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온 나라에 준전시상태가 선포되고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한다는 공화국정부성명이 발표된 얼마후인 1993년 3월 1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소집에 대한 공보가 발표되었다. 세계는 조선반도에 조성된 정세에 놀라며 평화와 자주통일, 민족대단결의 길을 다시금 온 겨레와 세계민전에 명시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이 전세계에 울려 퍼졌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민족의 단합으로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평화와 평화

통일의 전도를 개척할 가장 합리적인 방도를 구상하시고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대단결강령을 한조항한조항 완성하시어 주체82(1993)년 4월 6일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제시하시었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총론과 10개 조항으로 되어있다. 총론에는 강령의 기본사상이 천명되어있고 제1조에는 전민족대단결의 총적목표가, 제2조에는 민족대단결의 리념적기초, 제3조에는 민족대단결의 원칙, 제4조에서 제10조까지는 민족대단결의 방도가 명시되어있다.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그 어떤 계급이나 계층의 리익보다 민족전체의 리익을 찾자리에 놓고 모든것을 조국통일위업에 복종시킬때 대한 내용으로 일관된 애국애족의 통일강령이며 민족내부의 대결을 끝내고 전 민족의 화해와 단결을 이룩할때 대한 민족단합의 대한장이며 호상 존중과 양보의 정신으로 모든 문제를 민족적원칙에서 풀어나가며 모

든 사람들을 아량있게 포섭하여 민족공동의 번영의 길로 이끌어나갈데 대한 정치대강이다. 1993년 4월 7일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에서는 우리 나라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를 토의하고 첫 번째인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전민족대단결강령을 채택할데 대하여》에 대한 보고와 토론들이 진행되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발표하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세하에서 우리 민족의 주체적인 힘으로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성취할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길을 명시한 민족단합의 대한장이며 애국적인 민족공동의 강령으로 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전적으로 지지환영하였다. 회의에서는 《7천만겨레에 게 보내는 호소문》이 채택되었다. 호소문에는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실현하는 여기에 모든 해외동포들의 본분이

있고 참된 애국이 있다고 하면서 모두가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고 파란만장 실천가가 되어 조국통일의 성스러운 위업에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호소하였다.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의 열렬한 지지와 환영을 받았으며 그들을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공화국북반부에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지지관철하기 위한 군중대회가 평양시를 비롯하여 각 도에서 진행되고 각 정당, 사회단체들은 성명서와 담화를 발표하였으며 노래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가》와 《전민족대단결의 노래》가 창작보급되었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통일의 큰 열쇠》, 《통일의 지름길》, 《7천만겨레의 오늘과 좌표와 레이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는 민족통일의 대강》이라고 하면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본사기자

해외에서는 제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가 제일동포들을 대상으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지지하는 3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범민련 유럽지역조직의 각계각층 대표들의 련환모임에서와 모스크바에서 열린 조선통일추진위원회(아조코) 제2차대회에서도 단결같이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지지환영하는 결의들을 채택하고 그 관철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벌리었다. 참으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조선사람이라면 북이든 남이든 해외이든 그 어디에 살고 무슨 사상을 신봉하는 관계없이 서로 손잡고 한데 뭉치는데서 그 어떤 다른 견해도 있을수 없는 완전무결한 단합의 대강, 민족대단결의 체제이다.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이 제시됨으로써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 모든 조선동포들에게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대단결의 넓은 길이 열리게 되었으며 민족통일전선운동의 지도적지침이 마련되게 되었다. 본사기자

역을 하고 추은 온다고 새해를 맞고보니 지나온 한해가 돌이켜져 감회가 새롭다. 공화국의 품에 안겨 20여년세월을 신념과 의지의 강자로 만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삶의 최절정에서 살고있는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이 무병무탈하여 로망의 장이라고 삶의 절음절을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랑과 배려는 해가 갈수록 더욱 커만 가고있다. 지난해에도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절세위인을 모시고 제7차 전국로병대회에 크나큰 영광을 지니었다. 우리는 정쟁로병들을 혁명의 로선배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한순간이라도 편히 쉬시우기를 간절히 바랬건만 그이께서는 지난 한해에도 위민헌신의 불멸할 자욱들을 아로새기시었다.

진짜 인민에게 새해의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면서 위대한 인민을 받드는 충실일편단심 변함없을것을 다시금 맹세한다는 뜻깊은 친필서한을 보내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이시이다. 그날로부터 시작된 그이의 2021년 위민헌신의 발걸음을 따라 우리 조국은 더 크게 전진하고 승리를 자랑스럽게 떨칠수 있게 되었다.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과 보통강안다락식주택구건설, 검덕지구에 일터는 사상초유의 산악협곡도시, 백두산기술에 한복의 그림자나 펼쳐진 눈부시고 아름다운 산간의 리상도시, 은정어린 첫제품을 받아안고 행복에 웃음짓는 어린이들의 밝은 모습, 함경남도 피해지역들에서의 새집들이행사... 흑심한 도전과 장애를 과감히 물리치시며 려사의 기적을 안아오시고도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온 나라가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으로 설레이는 지난해의 마지막날에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를 지도하시면서 우리시 사회주의발전의 새로운 진로를 밝히는 실천강령을 제시해주시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새해에도 조국은 인민의 리상향으로 더욱 전진되리라 하는 희망

과 확신으로 하여 벌써부터 마음이 흥분됨을 금할수 없는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이이다. 사랑에는 보답이 따르기 마련이다. 수십년간의 육종고초를 겪으면서도 우리가 굴하지 않았던것은 자기 령도자를 끝까지 받들어모시고 따르려는 억센 마음을 굳게 간직하였기때문이다. 철해도에서도 당과 수령을 변함없이 굳게 믿고 따르는 억센 신념과 의지를 우리 자손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물려주는것이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뜻깊은 새해의 이 아침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령도를 더 잘 받들어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나갈 결의를 다시금 굳게 가다듬게 된다. 비전향장기수 홍명기





사진으로 본 2021년의 두 제도, 두 현실



존엄과 영광의 상징 국기를 우리르며



모두에게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며 밝아온 새해 2022년, 새해를 맞으며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는 국기제양식이 진행되었다.

애국가의 장중한 선율이 울리는 속에 람홍색공화국기가 서서히 게양될 때 광장에 모인 수많은 남녀노소 모두가 경건한 마음으로 어머니조국의 국기에 삼가 숭고한 경의를 드렸다.

이들만이 아닌 온 나라의 가정들 마다에서 사람들은 TV로 국기제양식을 지켜보며 숭엄한 감정에 물젖어 있었다.

잊을수 없는 한해를 마감하고 밝아온 조국의 희망찬 새해를 맞으며 세차게 펄럭이던 우리의 빛나는 국기. 그 기발을 우리르며 누구나 격정과 흥분을 금치 못하였다.

불과 한세기전까지만 해도 조선은 국호도, 주권도, 영토도 잃고 사람 못살 암흑의 천지로 화하였었다. 힘이 약해 외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백성은 노예가 되어야 했던 수난많은 나라였다.

그러했던 이 땅에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존엄과 번영의 시대, 강국의 새 시대가 펼쳐져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지위는 최절정에 이르렀고있다.

영토는 작고 인구는 많지 않지만 세계에 그 이름 빛나는 강대한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홀러온 2021년에도 조선에서는 무진막강한 자위의 힘을 과시하며 성대한 열병식이 펼쳐지고 신형장거리 순항미사일시험발사,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시험발사 등이 련이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국방발전전략 《자위-2021》도 열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5개년계획 첫째 과업수행에 떨쳐나선 인민들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그 환희와 긍지로운 날과 날들이 펄럭이는 국기에 다 비껴 사람들의 눈가에 주마등처럼 흘러가고있었다.

밤하늘에 휘날리는 국기를 경건히 바라보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숭엄히 자리잡은 생각, 그것은 또한 위대한 인민의 나라에서 사는 무한한 행복감이였다.

홀러온 지난 한해에도 세상은 어지러웠다. 피난민행렬이 방황하고 비명과 곡성이 터져나왔다. 세계적인 대전염병사태로 우리죽음이 나고 경제와 민생이 더욱 피폐해져 실업자가 거리를 메우고 반정부시위와 집회들이 어디서나 그칠새 없었으며 삶의 막바지에 이르러 다른 나라로 탈출하는 이주민들의 행렬이 세계도처에서 끊이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 땅, 이 하늘아래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지난 한해에도 조선로동당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전체 인민을 자애롭게 보살피고 포근히 감싸안아주었으며 수도 시민들을 위한 1만세대 살림집건설과 검덕지구의 5000세대 살림집건설, 조선로동당의 육아정책을 비롯하여 인민을 위한 중대조치들이 련

속 취해졌다. 얼마전에도 수도의 매가정들에 또다시 사회주의바다향기가 넘쳐흘러들어 누구나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격정의 눈물을 흘리었다.

인민들의 자주적권리가 참담게 보장되고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로 날과 날이 흐르는 세상에서 가장 인민적인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그 자랑스러운 국가의 상징인 국기가 밝아온 새해를 알리며 김일성광장상공에 펄럭 휘날리고있었으니 정녕 것처럼 자랑스럽고 멋뻐하고 긍지높은 국기제양식이 세상 어디에 또 있겠는가.

국기제양식이 진행된 시간은 길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에 공화국은 더욱 강한 하나가 되었다.

밝아온 2022년, 홀러갈 희망찬 새해를 기쁨속에 속삭여주며 국기는 끝없이 펄럭이였다.

본사기자 김준경



2022년 신년 경축 공연 진행

우리식 사회주의를 더욱 강대하고 부유한 길로 인도하는 위대한 당중앙의 향도따라 새 승리의 진군로를 활기차게 열어가는 천만 인민의 무한한 애국열의가 새해 주체111(2022)년의 려명으로 불타올랐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밝힌 웅대한 실천강령을 높이 받들고 이민 위친, 일심단결, 자력경쟁의 위력으로 용진해온 2021년의 긍지높은 추억과 새해의 크나큰 희망과 열정

으로 뜨겁게 달아오른 12월 31일 밤 수도 평양에서는 신년경축공연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특색있는 무대장치와 화려한 장식물들로 불야경을 이룬 김일성광장은 신년을 앞둔 시민들의 환희로 실레이었다.

존엄높은 강국의 공민된 자긍심을 부돋아주며 신년경축공연무대에 《위대한 내 나라》, 《내 나라 제일로 좋아》의 노래선율이 울려 퍼지였다.

출연자들은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로 이 땅위에 새로운 발전과 번영의 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펼쳐준 조선로동당의 불멸의 업적과 위대성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력사의 모진 풍파속에서도 천만 자식을 소중히 품어안아 보살피고 기쁨과 행복을 꽃피워주는 위대한 어머니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분출시킨 녀성독창 《그 정을 따르네》, 혼성2중창 《우리 어머니》는 관중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리었다.

공연무대에는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진 군로의 탄과 지혜를 아낌없이 바치며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의 첫째를 빛내인 승리자들의 희열이 차넘치였다.

전세대의 고귀한 투쟁전통을 이어 어렵고 힘든 전구들에 탄원진출하여 위훈의 창조자로 아름다운 삶을 꽃피워가는 애국청년들의 기상을 담아내고 경축의 밤하늘에

울려 퍼진 《청춘들이 받들자 우리 당을》, 《같이 가자요》를 비롯한 청춘송가들은 약동하는 공연분위기를 더한층 돋구었다.

인민의 행복과 기쁨을 노래한 남성독창과 녀성방창 《행복의 래일》, 남성4중창 《벼가울러 갈 때》, 녀성중창과 남성방창 《바다 만풍가》, 혼성중창 《정말 좋은 세상이야》 등은 자력으로 전면적부흥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공화국의 자랑찬 모습을 감명깊

게 보여주었다.

희망찬 새해의 첫 시각을 가까이하는 광장에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높이 모신 끝없는 영광과 행복속에 천만년 존엄높이 살아갈 전인민적인 사상감정을 구가한 노래 《인민의 환희》가 대중창으로 울려 퍼지며 공연은 절정을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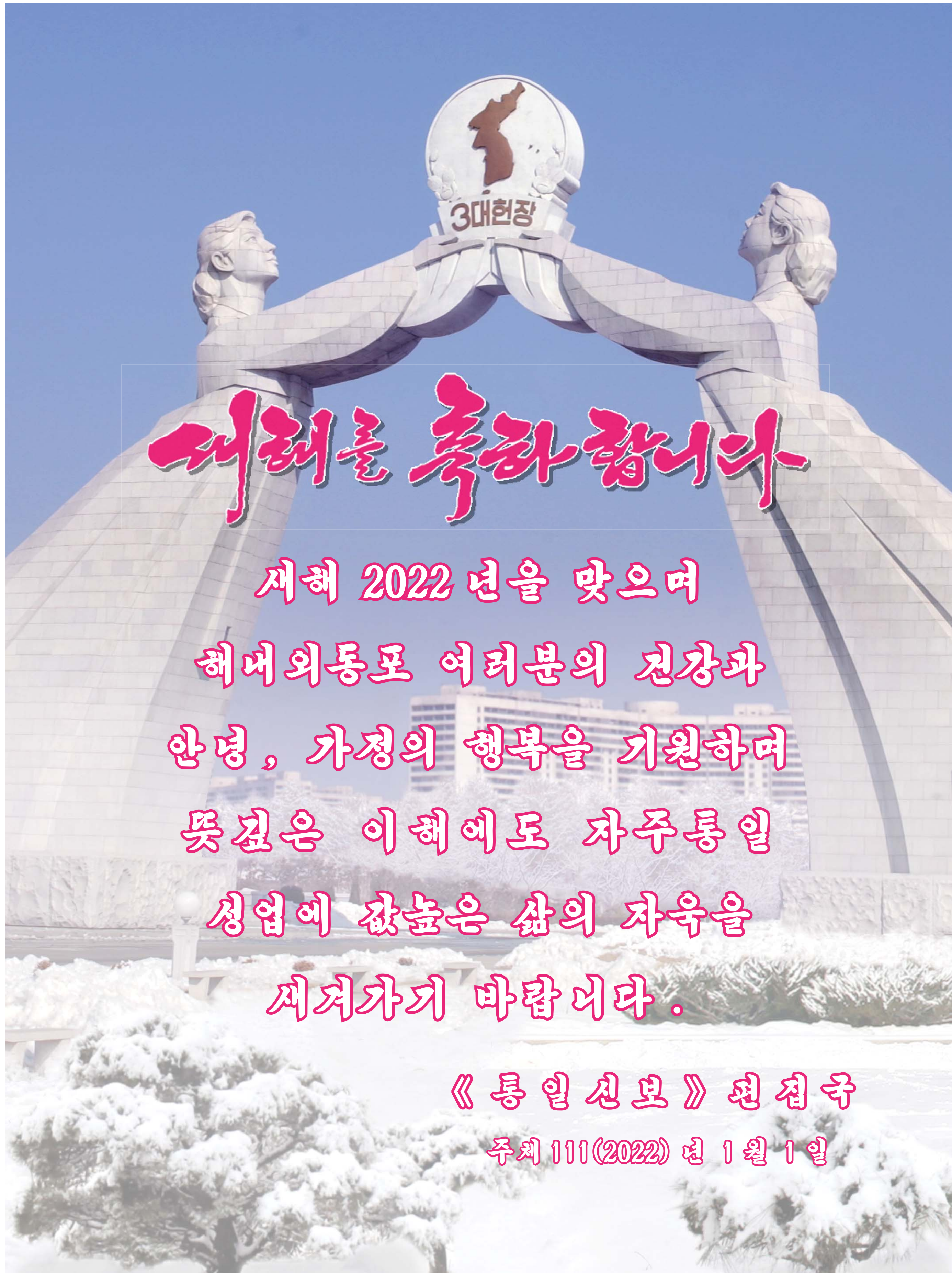
위대한 아버지의 따뜻한 축복속에 인민의 리상과 녀원, 온 나라 모든 가정의 소중한 행복이 더 활

작 꽃피려낸 새해의 기쁨과 람만, 격정으로 시종 뛰어넘진 공연은 대중창과 무용 《세상에 부럼없어라》, 《설날아 내려라》로 끝났다.

2022년 신년경축공연은 위대한 김정원수님과 더불어 무궁번영할 사회주의미래에 대한 확신과 우리 국가제일주의기치높이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비약해나갈 인민의 불타는 애국의 열정을 잘 보여주었다.

본사기자





새해를 축하합니다

새해 2022년을 맞으며

해내외동포 여러분의 건강과

안녕,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며

뜻깊은 이해에도 자주통일

성업에 값높은 삶의 자욱을

써여가기 바랍니다.

《 통일신보 》 편집국

주체 111(2022)년 1월 1일